

# “北 대화거부땐 美-北 관계개선 없다”

## ■李大統領, 힐러리美 국무장관

### 李大統領 “6자회담서 北 설득땐 핵 포기할 것”

### 힐러리 “북 후계 구도 싸고 위기 직면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북핵 문제와 관련, “6자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득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양국은 말 그대로 핵평 관계”라며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위기와 관련, “미국이 세계 경제 회복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세계 모든 나라가 동시에 재정지출을 해야 세계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고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최소한 GDP(국내총생산)의 2%를 투자해야 회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클린턴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지는 굳건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2만5천명의 주한미군 존재가 바로 그 증거로 한·미 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세계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의 지혜로운 충고를 오바마 대통령과 경제 참모들에게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한·미 간의 철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문제에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클린턴 장관은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그 어떤 주제보다 북한 문제에 있어 한·

미는 한 마음”이라며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북한이 최근의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조건없이 남북대화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소개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기반으로 했을 때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양국간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가까운 기간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와 관련, “런던에서 대통령간 만남을 기대한다”고 말해 4월 초 런던에서 열리는 G20 금융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첫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북한 지도부의 상황이 불투명하다면서 미국 등 관련국들은 북한이 조만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문제와 관련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AP,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지도부의 상황이 불투명하다면서 미국 등 관련국들은 북한이 조만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문제와 관련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접견, 양국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북 NLL 공격시 발사지점 보복”

### 이상희 국방장관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0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이 선제공격을 해를 경우 타격지점을 공격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장사정포나 미사일 등으로 우리 함정을 공격할 경우 대응방안을 묻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질문에 대해 “타격지점에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적의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예방조치를 하는 한편 (북한이) 분명히 공격행위를 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지점을 공격할



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장사정포나 미사일 발사지점을 공격할 경우 소규모 국지전의 확전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전면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군은 현장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 적의 도발한만큼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우리 함정의 미사일 방어능력도 관련, “각 함정은 미사일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자체방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일 경기도 용인시 천주교성직자모역에서 열린 김수환 추기경의 하관식에서 신도들이 김 추기경의 묘에 흙과 국화꽃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상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그는 한국인 전체의 정신적 지주였다”며 “김 추기경은 민주주의와 인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이에게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광주전남서도 회고록 구입 쇄도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추모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고 회고록을 구입하려는 문의 전화가 폭증하는 등 ‘추기경 따라하기’ 신드롬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광주전남본부 측은 “김 추기경 선종 이후 장기기증을 서약한 시도민 수가 100명을 넘었으며 특히 전에는 젊은층이 주로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지만, 추기경 선종 이후 6·70대 노인들이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내 서점가에는 김 추기경이 생전에 집필한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등 회고록과 관련서적을 구입하려는 문의 전화도 쇄도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시설

### ‘사랑’ ‘화합’ 풀씨 퍼뜨리고 간 추기경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위해 평생 헌신했던 김수환 추기경이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다. 김 추기경은 선종(善終) 닷새째인 20일 오전 서울 명동 대성당에서 마지막 작별의식인 장례 미사를 마치고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가톨릭성직자 모역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것이다.

그동안 김 추기경에 대한 추모 물결은 이념과 계층, 세대를 넘어 끝없이 이어졌다. 서울 명동성당 조문객만 40만 명, 전국적으로 최소 100만 명의 조문객이 빈소를 찾았다. 근래 볼 수 없었던 국민적 ‘조문 열기’였다. 이는 김 추기경이 생전에 몸소 실천한 사랑과 회생, 나눔에 대한 순수한 감사의 마음과 존경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김 추기경의 선종은 갈등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제 김 추기경의 거룩한 뜻을 우리 모두의 정신자산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그의 사랑과 가르침을 통해 대한민국이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정치인 및 사회지도층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사랑과 통합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사랑하세요.’ ‘고맙습니다.’ ‘내 탓이오.’ 김 추기경이 남긴 짧은 말들을 실천할 때 사회적 갈등도,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김 추기경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나고 없다. 그러나 그가 남기고 간 깊고 넓은 사랑은 모든 이의 가슴 속에 남아 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간 김 추기경이 그곳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를 바란다.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사랑과 평화, 정의와 화합을 실현하는 일은 남은 우리들의 몫이다.

### 이젠 양식어업조차 대기업인가

정부가 대기업의 양식어업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고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19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양식어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영세 어업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양식업 참여를 금지해 왔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다. 대기업이 양식업에 뛰어들면 참다람쥐나 대구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어류를 대량생산할 수 있어 내수 위주의 양식업을 수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가두리 양식시설도 면바다로 옮겨가 양식장 주변 해역의 환경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영세어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대기업만을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 양식업은 대부분 연소득 3천만~4천만 원에 불과한 영세 연안 가두리 어업 형태다. 이런 상

황에서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진입한다면 영세 양식어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영세 어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이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생계 수단을 빼앗고 거리로 내모는 행위이다.

전남지역 양식어업 종사자는 2만5천여 가구로 전국 총 양식어가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대기업 진출로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동네 수퍼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에 밀려 고사(枯死) 직전이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계층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또 양식업까지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면 서민들을 뭇 해먹고 살라는 말인가. 지금은 영세 양식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를 해주어야 할 때다.

### 권철현 주일대사 이상한 귀국?

#### 대규모 종교행사 등 정치행보 논란

권철현(사진) 주일대사가 국내에서 가진 종교행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권 대사는 외교통상부에 오는 22일까지 휴가를 신청하고 지난 17일 귀국했다가 20일 오후 자신의 지역구에 소재한 한 교회에서 본인의 장로 임직(취임)식을 기념한 대규모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행사가 여당 의원들과 지역인사 등 각계각층인사들이 초청되는 등 요란스럽게 치러졌다는 것.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사는 또 지난 18일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 인사들과 저녁식사를 한데 이어 이날



지역 한 초등학교 강당 개관식에도 참석했다.

이 때문에 권 대사의 일련의 움직임들이 정치 행보가 아니냐는 논쟁을 받고 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한 의도된 행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대사 측 관계자는 “정치행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이 의원의 축사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소망교회 장로 자격으로 오랜 인연 때문에 오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당정 내달말 추경예산 15조~20조 편성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하기로 하고 3월 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예산 편성 방향을 보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이 전했다.

추경예산의 재원마련은 세계여유금을 활용하되, 필요시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할 경우 대체로 15조~2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정은 이에 함께 세계적 경제위기 발생 등 변화한 환경을 감안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빛日만평

- 김중두



의원님들 자존심 좀 상하겠나

## 항암효과 탁월 ‘셀레늄 김’ 나온다

### 해남군, 전국 최초 특허출원

면역력 증진, 항암 효과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셀레늄이 들쭉 담긴 ‘셀레늄 김’을 조만간 맛볼 수 있게 됐다. 해남군은 해빙 바람과 함께 가공식품의 기능성 소재로 주목받는 셀레늄을 전국 최초로 김에 침착시키는 기술을 개발, 최근 특허출원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과 쌀 등 식품에 셀레늄이 첨가된 적은 있지만, 해조류에 셀레늄을 침착시켜 제품을 개발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바다에서 갓 뜬 김을 염색해 가공공장에서 씻을 때 인위적으로 식용 셀레늄이 김 염색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침착과정

을 거치면 무기 셀레늄이 유기 셀레늄으로 바뀌면서 유익한 셀레늄 형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군은 특허가 나오면 김 가공공장과 계약하고 올해 말부터 셀레늄 김을 출시할 계획이다.

김충식 해남군수는 “셀레늄 김이 출시되면 기존의 김보다 50% 이상 소득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셀레늄은 면역력 증진, 어린이 성장발육 향상, 항산화 및 항암효과, 중금속 중독 방지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한편, 해남군 김 양식면적은 7천746ha로 연간 4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사회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사 회 1 부 2200-622	조 사 부 2200-571 (F A 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